이긴자 일대기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4회〉

하나님의 피로 바뀌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면 힘이 솟구쳐

10절 :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3) 제3신앙촌의 비화(祕話)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5) 밀실에 입문하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인을 뗄 때 "죄가 핏속에 있다."라고 선포하여 온 세상 마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전체가 죄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해도 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죄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로써 열심히 전도하다가 교회 하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도 좋아하는 음란죄다."라고 지적하심으로써, 인류의 조상 아담 이래로 6천 년간 사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으로서 행세해 왔던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행하는 전체가 죄요, 마귀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다

영(靈)의 세계, 신(神)의 세계에서는 마귀와 수천만 번이나 싸우는 중에 백전백패를 거듭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뚝이마냥 일어나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마귀의 급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었던 해와 이긴자가 밀실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나'라는 것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죄(罪)라는 것까지는 제대로 알았지만, 진작 '나'라는 것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다',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면 관심의 음란죄다' 그리고 '형제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면 참견하는 음란죄다'라는 등 밀실에서 연단 받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읽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인을 떼는 자가 아는 한계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인을 떼는 일곱째 천사가 되는 아담 이긴자에 의해 '나'라는 것이 생각하고 행하는 전체가 왜 죄가 되는지 온전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밀실에서 1차 이긴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던 일곱째 천사는 그만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 인간으로서는 이긴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는 철저한 반대생활로 일관

또한 일곱째 천사는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현재 인간 몸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도 자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죄의 정체요 마귀의 급소임을 알고는 그때부터 나 자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 철저한 반대생활로 일관하게 된 것입니다. 졸리면 반대로 자지 아니하고 또 밥상에 올라온 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지 아니하고 반대로 씀바귀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들어 쉬고 싶으면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마귀와 본격적으로 영육 간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하여 대(大)자 음란마귀를 이기고 나면, 다른 모양으로 음란마귀가 '나를 의식하는 마귀'로 들어와서 '이제 네가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지나치게 이러다가 굶어죽으면 어떡할래?' 하고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마귀새끼가 갖은 모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차 없이 잘라버리고 과감히 부수고 나가면, 한 단계 넘어가면서 음란마귀를 죽이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 싸워 그 마귀를 죽여 봐야 음란마귀가 어떻고, 의심마귀가 어떻고, 자존심 마귀가 어떻고 또 기뻐하는 마귀, 슬퍼하는 마귀, 궁금한 마귀, 조바심 마귀 등 내 생명을 죽이는 모든 마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격암유록 은비가에 예언된 노고산 자락의 밀실 배경과 이곳에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세멘 여덟 포를 졌던 지게의 실제 모습

나를 미워하는 대상자를 내 방에서 같이 살게 했지만 변치 않는 사랑과 봉사로 이겨내다

일곱째 천사가 반대생활로 마귀를 싸워 승승장구로 이겨나가니까, 해와 이긴자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방에 대상자를 들여 놓고 함께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대상자는 일곱째 천사만 보면 트집을 잡고 또 일곱째 천사만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하면서 흉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곱째 천사의 방에 가서 같이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존댓말로 "이 아랫목에 주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곱째 천사는 나이 오십이 다 되어 가고 그 대상자는 이십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이 아랫목에 주무셔야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아랫목에서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밀실에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영적인 형님이니까 당연히 아랫목에서 주무셔야죠. 나는 더운 데서 잠을 못잡니다."라고 깍듯이 공대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일곱째 천사의 말에 못이기는 척하고 아랫목에 자는 것입니다. 밀실 집이 전부 하코방으로 지어졌기에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골이 되는 윗목에서 지내게 된 일곱째 천사는 떨떨 떨면서 밤새토록 기도했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거듭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땔감을 구해다가 군불 때는 것도 일곱째 천사가 도맡아서 하고 이부자리를 깔고 개는 것도 손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위하여 종의 종노릇을 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같이 자는 그 청년은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만날 같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해와 이긴자에게 만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우쭐한 것도 없고 거만한 것도 없고 아주 겸손하게 잘 합디다." 하고 반대로 보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일곱째 천사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일곱째 천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곱째 천사가 항상 봉사하고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겸손하게 일곱째 천사가 움직이니까,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바로 신에 가까운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조사장님은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러한 칭찬을 하십니까? 나는 아주 못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보는 거와 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같이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지구 땅 위에서는 조사장 같은 사람은 내가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 미운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되니까 그게 '이겼다'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이기게 되니까, 해와 이긴자는 일곱째 천사의 방에서 그 대상자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대상자의 마귀가 죽자, 그 시체가 소·대변으로 시커먼 피의 형태로 쏟아져 나감

일곱째 천사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소변으로 대변으로 피가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귀가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이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가 조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바뀌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내게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로 바뀌지고 하나님의 피로 몸의 세포를 조성하는 고로 마침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항상 가볍고 몸이 항상 말할 수 없는 쾌락을 누리며 상쾌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니까 힘도 솟구치는데, 밀실 바닥에 세멘을 깔 때에는 40킬로그램 세멘 여덟 포를 한꺼번에 지게에 지고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땅이 한 쪽 발을 내딛을 때마다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밀실에 있는 바위만한 돌들도 모두 일곱 번째 천사가 지게에 지고 나른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별호를 '일군'이라고도 하시고, '12지파의 두목'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4'숫자이지만 조사장만은 '5'숫자라고 하시고, "조사장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말아 놓고 구원이야!"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막내둥이'라고 하셨습니다. '막내둥이'이라는 말은 세 번째 이긴자 즉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을 가려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밀실 식구들은 그들 자신을 고참으로 생각하고 일곱째 천사를 막내둥이로 취급하고 부리는 것입니다.

20대의 새파란 젊은 청년이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고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잘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퉁이를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것이 마귀인고로, 그리고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죽은고로 매를 맞아도 고소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같이 여기게 되니 자유율법이 지켜지며 마귀가 죽는 고로, 때린 청년이 나중에는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서 "제가 손위 어른을 손찌검해서 죄송합니다."하고 잘못을 빌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막내둥이였던고로 뜨거운 여름, 섭씨 30도가 오르내리는 날에도 해와 이긴자께서 쓰실 목욕물을 자전거 뒤에 가득 싣고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무릅쓰고 길어 오는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경사진 비탈길을 밀고 올라오느라 전신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51〉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第二十九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가 고요함

須菩提 若有人言如來若來若去
수보리 약유인언여래약래약거
若坐若臥 是人不解我所說義
약좌약와 시인불해아소설의
何以故 하이고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여래자무소종래 역무소거
故名如來 고명여래

수보리야, 만일 여래(法身佛)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누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석존) 말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법신불)는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는 것이 여래니라.

[해석] 여래(法身佛)는 우주의 근본체인 법신(法身)이므로 가고 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반경에도 석존이 말씀하길 여래(法身佛)는 영원(常)하게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 ▣ 대반열반경 6권 사의품(四依品) 제8

法者卽是法性 義者卽是如來常住不變
법자즉시법성 의자즉시여래상주불변
智者知一切衆生悉有佛性
지자지일체중생실유불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법의 성품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래께서는 항상 머무르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성품이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해석] 여래라고 함은 바로 부처성품(佛性)이요 부처성품은 곧 법의 성품(法性)이고 법의 성품은 진리의 본체요, 또 부처성품(佛性)은 생명의 실상인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물질이라면 이 물질들 가운데 생명의 실상이 있고 진리의 내면이 있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이란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질 속에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과 식물, 돌과 나무, 물과 바람과 흙 등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또한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대 과학에서는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포대화상 _ 출처: http://www.ifuun.com/a20179175328165/

물질은 바로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소를 또 쪼개고 들여다보면 바로 원자핵과 중성자 그리고 그 둘레를 도는 전자가 있다는 것이 요즘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러한 것이 존재를 하려면 이런 것이 움직이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 있다는 것이며, 살아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은 바로 법계인 우주의 주인인 법신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일체중생 모두에게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석존께서는 완성된 불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는 지금의 제자들인 스님들이 석존의 죽음을 보고 "왔다느니, 돌아갔다느니"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주의 본체인 여래가 왔다 갔다 누웠다 앉았다 하는 말씀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되는 불종자(佛種子)가 어느 누구에게든 다 있다고 하는 뜻으로 성문과 연각의 벽지불과를 이룬 석존이 아닌 여래(法身佛)가 오거나, 가거나, 누웠거나, 앉았다고 함은 뜻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석존은 여기서도 부처님이 아님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인 법신불(法身佛)은 이 만물이 존재하는 한 어느 곳이든 항상 머무르고(常住) 그 모양이 변치 않는(不變)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은 돌부처나 쇠부처 형상이 아닌 육신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하시나 사실은 감로를 가지고 사람들 각각의 업장을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켜 지혜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며 희망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주에 꽉 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의 마귀(死魔)'를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키며 온 우주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께선 분신(分身)의 능력이 있으시므로 동시에 각각의 장소에 각각 다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적(異跡)도 수없이 많습니다.

▣ 포대화상의 열반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 진미륵(彌勒 眞彌勒)
분신 천백억(分身 千百億)
시시 시시인(時時 示時人)
시인 자불식(時人 自不識)

미륵불 진짜 미륵불은
분신을 천백 억으로 하여서
때때로 사람에게 내보이지만
사람이 어리석어서 알아보지 못하네*

(다음호에 계속) 明鍾